



표지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려면

은사보다 먼저 흐르는 은혜에
관한 이야기



좋은 일 뒤에 남는 것

좋은 일을 했는데도 누군가의 마음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무엇을 했는가와 함께, 그
사람이 무엇을 경험했는지를
돌아봅니다.



명령보다 먼저

우리가 움직이기 전에 은혜가 먼저 왔습니다.

은사는 내가 가진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선물입니다.



서로 다른 선물

서로 다른 은사는 한 몸을 세웁니다.

같아질 필요 없이, 받은 것을
나눌 때 공동체가 온전해집니다.



명사가 아니라 동사

은사는 나를 높이는 이름표가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는 행동입니다.

경청하고 돕고 함께 건널 때,
받은 은사가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어떻게 했는가

잘하는 것만큼, 사람을 대하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앞에서 이끄는 사람도 지친 이를
살피고 함께 짐을 들어야
합니다.



은혜의 태도

성실함과 부지런함과 즐거움이 은혜의 방향을 지킵니다.

나눔은 베푼 사람을
드러내기보다 받은 사람의
존엄을 지켜 줍니다.



마지막 기도

**우리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받은 은사가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잇는 통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